하나님의 지혜가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지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최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야 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이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대대로 영원한 삶을 향한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유산으로 남기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찬송 430장(주와 같이 길가는 것)을 부르겠습니다.

1절 : 주와 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 :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절 :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절 :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절 :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8.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광교회
SEKWANG PRESBYTERIAN CHURC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1Chronicles 16:34

예 배 순 서

지금부터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 찬송 393장(오 신실하신 주)을 부르겠습니다.

1절 :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렴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후렴 :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2절 :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3절 :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3. 가족을 대표하여 _____ 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뿌리내려서 많은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7편 1-2절입니다.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5.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면 솔로몬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는지 알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다윗의 열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고, 그의 명성은 사방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는 가장 넓게 확장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정점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제대로 세워본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 명성을 누리고,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면 그는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집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는 다르게 단 한 가지를 말했고,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